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 전남, 경남(남해군) 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100m² 출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국립수산물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일부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함에 따라 주의단계* 특보를 9월 13일(수) 16시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 주의단계 발령기준 :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100m², 또는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 우려 시

** 전북, 경남(고성군, 거제시)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유지 중

해당 지자체에서 예찰한 결과, 전남과 경남해역에 100m²당 1마리의 노무라입깃해파리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특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연안에 발령된 해파리 주의특보는 기존 전북, 경남(고성군, 거제시)에서 경남 남해군~전남 남해연안까지 확대되었다. 올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작년에 비해 출현율이 80% 감소했으나, 남해연안과 부산~강원해역까지 당분간 소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라남도 : 1마리/100m², 경상남도(남해군 연안) : 0.2~1마리/100m²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크기가 크고 독성이 강해 어구 손실뿐만 아니라 해수욕객 쏘임 사고 등의 피해까지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로 인해 해파리 주의특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할 지자체에 매주 현장 조사·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어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모바일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누리집을 통해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거나 'www.nifs.go.kr/m_jelly/'로 직접 접속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정은주 (044-200-5542)
	해양정책관 해양레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영규 (044-200-5250)
		담당자	사무관	안숙현 (044-200-5253)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수산재해대응팀)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민병화 (051-720-2752)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해역>



노무라입깃해파리

해파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하세요!



모바일 웹 신고

여러분의 신고로 수집된 데이터는
해파리 출현정보로 이용되어
수산 피해와 해수욕객 소임 방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 QR코드 접속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신고 방법 2

포털사이트(구글 등)에서 “해파리 신고”검색하여
“해파리정보시스템-국립수산물과학원” 페이지로 접속하여 “해파리 신고 web” 클릭

모바일 접속 경로



※ 동영상 신고는 jellyfish@korea.kr 메일로 첨부

